

황혼기의 청춘들



무릇 황혼기라고 하면 인간의 한생에서 한창때가 지나가고 정신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시기를 두고 말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늙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60정춘, 90환갑을 노래하는 공화국의 년로자들이다.

며칠전 국제로인의 날을 맞아 평양시의 어느 한 공원에서 동대원구역과 평천구역 년로자들사이의 배구 경기가 진행되었다.

응원자들은 물론 길가던 사람들까지 모여와 어깨를 뻗고 경기를 관람하였다. 로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젊은이들 못지 않게 처량기와 공박기, 연락과 타격,

막기 등 민첩한 동작과 세련된 기술을 보여주는 선수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었다. 동대원구역선수들이 뺨판 타격으로 선수 점수를 올리는 상대편 선수를 부정선수라고 제기했기였다.

얼마후 《부정선수》의 생년월일이 밝혀져있는 시민증을 본 상대편 선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68살?! 그게 사실이요? 타격습서로 보아 50대중반쯤으로 알았는데...》

커지는 눈들, 탄성과 웃음소리...

환한 웃음속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로인이 《세월이 하도 좋으니 경기에서 《부정선수》들이 생기는구만. 저걸 좀 보라. 우리 로인들이 얼마나 젊어보이나.》라고 하는 말에 누구나 머리를 끄덕이였다.

젊어지는 로인들, 얼마나 좋은가.

당과 국가의 고마운 혜택속에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옷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젊음에 넘쳐 생활하는 년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비친 배구경기였다.

돌볼 사람이 없는 년로자들도 훌륭히 꾸러진 양로원에서 부러움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있다.

얼마전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양로원을 찾은 우리에게 한철수로인(75살)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예로부터 금이야 옥이야 라는 말은 어린이들에게 해주지 않았소. 그런 말을 오 늘 우리 보양생들이 듣고있 수다. 끼니때마다 우리를 위해 해준 요리로 푸짐한 식탁을 마련해주고 갖가지 생활용품들까지 보양해주어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있

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인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가장 우월한 시책들이 실시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무병무탈하여 복된 삶을 누려야 할머니는 받아안는 영광이 꿈만 같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지구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이 많은 나라들에서 년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사정없이 앗아가고있을 때 오직 공화국에서만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졌으니 이것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낳은 력사에 류례없는 사랑의 전설이다.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속에 황혼기에도 청춘을 사는 년로자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다.

《자식들은 양로원에 부모를 맡겨놓고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를 묻는 전화도 없다. 병중세가 심해져서 연락하면 죽기를 바라는 말투이다.》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로인들을 돌봐준다는 시실들도 이들과는 정반대로 학대와 폭력의 잔무장,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는 형편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

남조선에서 로인들에 대한 학대와 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련속 일어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자식이 돈을 노리고 늙은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자식이 병에 걸린 늙은 어머니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길가던 로인에게 달려들어 귀중품을 강탈한 사건, 80살 난 할머니까지 성폭행한 사건 등 로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살인, 강간, 강도행위가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빌어먹고있다. 지하, 움막, 비닐막막집 등에서 살고있는 로인들도 10만여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자식들의 버림을 받고 양로원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있는 로인들의 비참한 처지를 두고 남조선의 어느한 양로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생활, 자식들의 버림을 받은데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피로움, 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로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계속 벌어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로인자살상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되고있고 있다.

사회적으로 옹당 보호를 받아야 할 로인들이 모진 학대속에 나중에는 목숨까지 빼앗기고있는것이 인간의 정이 강그리 사라진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의 실상이다.

버림받은 로인들

《자식들은 양로원에 부모를 맡겨놓고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를 묻는 전화도 없다. 병중세가 심해져서 연락하면 죽기를 바라는 말투이다.》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로인들을 돌봐준다는 시실들도 이들과는 정반대로 학대와 폭력의 잔무장,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는 형편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들이 《로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이다.》고 하면서 남조선은 세계적인 로인자살상국, 남조선의 부모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불행하다고 개탄하고있었다.

남조선로인들의 비참한 처지는 극도의 인간중요사상과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반인민적 사회제도가 빚어낸 사회악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수령 조국의 품에 안겨 혁명가국의 주인공으로

나는 누구보다 노래를 사랑한다. 철부지소년시절부터 음악과 인연을 맺고 수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노래 《한없이 고마운 조국의 품》을 나는 남달리 사랑하며 즐겨 부른다.

...

어제날의 이국살이 설움도 가져주고 고향에서만 그려보던 소원도 풀어주네

아 조국이여 그대는 수령님 품 희망을 꽃피우는 어머니여 사랑의 품이여

...

세상에 태어나 이처럼 황홀한 공연을 처음으로 본 16살 애인 나의 가슴속에는 성악가로서 청춘의 푸른 꿈을 꽃피워갈 희망이 보름달처럼 가득 부풀어올랐다.

하지만 거처는 자본주의일 분방에서는 그 누구도 나의 소원을 알아주고 풀어주지 못하였다.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 만드는 사회주의조국에서만 그 소원을 이룰수 있음을 깨달은 나는 1973년 10월 공결에도 나는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날아키운 부모는 바다너머 일본땅에 있었지만 나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어머니조국의 사랑속에 부러움 없이 자랐다.

무로교육의 혜택속에 온갖 조건을 보장받으며 평양음악 무용대학(당시)을 졸업한 나는 그토록 소원하던 가극배우가 되였다. 영광스럽게도 나는 20대청년시절에 조국의 이름있는 예술단체에서 창작한 혁명가극 《피바다》의 주인공역을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

머니로 불리우며 조국이 알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보람찬 예술창조활동을 벌인 그 나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으로부터 어머니역을 한 배우가 노래를 잘 부르니 작품의 수준이 속출라간다고, 그는 혁명가극 《피바다》의 품위에 맞는 진짜주인공역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받아안는 크나큰 행운을 지니었다.

조국의 사랑속에 공훈배우, 인민배우의 영예도 지니고 이름난 성악가수들에게도 드물게 차례지는 개인독창회를 여러 차례 진행한 나는 국제성악콩쿨에 참가하여 순위권에 입상하고 음악특별상도 받았다.

예순이 지난 오늘도 나는 청춘의 활력에 넘쳐 주체음악 예술의 후비를 키우는 원수장인 김원경명정 평양음악 대학에서 후대교육사업에 전념하면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한껏 느끼고있다.

나를 날아키운 부모도 한갓 철부지소년의 공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나의 희망, 나의 꿈, 그것은 따사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신비한 전설에서처럼 현실로 활짝 피어났다.

하기에 성악가수로서 성공한 쉽지 않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축하해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나의 운명은 달리 되었을것이라고.

진정 어머니조국이 있어 나의 복된 삶도 있으니 나는 앞으로도 노래 《한없이 고마운 조국의 품》을 부르고 또 부르며 조국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것이다.



가슴마다 절음마다 기쁨을 안겨주네

이 나라의 주인으로 한생을 빛내주네

아 고마워라 수령님 그 언덕

이 한몸 다 바쳐 충성다하리 효성을 다하리

김원경명정 평양음악대학 교원 인민배우 조청미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오리공장건설 - 전화의 나날에 내각결정으로

광포오리공장은 공화국의 가금업부문에 어머니공장, 굴지의 오리고기생산기지로 불리고있다.

함흥시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광포오리공장은 전쟁의 포화속에서 그러전이 마르던 전쟁이 끝난지 5일만에 창립되었다.

전쟁이 승리한 다음 나라의 도처에 오리공장, 닭공장들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마음껏 먹이시려는것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에서 몸소 50여마리의 닭을 키우시면서 가금의 특성과 사양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신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가련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6월에 채택된 내각결정 제295호에는 함경남도에서 오리목장을 꾸릴때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식달도 안된 주체42(1953)년 10월은 나라가 제미미속에 파묻혔던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서 나루배를 타고 넓은 광포호수를 건너시어 처음으로 광포오리공장을 찾으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이날 과거에는 돈많은 부자들이나 고기를 먹었기때문에 그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아 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이 우리의 임무였기때문에 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야 하므로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고기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광포오리공장에 바친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었다.

사양관리경험이 없었던것으로 하여 공장에 많은 난관이 조성되었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 공장을 추켜세울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고 몸소 비행기 수백개의 종자오리알까지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여기서 까난 종자오리가 마침내 수천수만마리로 불어나 《광포종》으로 불리워 온 나라로 퍼지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주체63(1974)년 새로 확장된 광포오리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오리고기가 쏟아져나오는 광경을 만족하게 바라보

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 광포오리공장은 《오리의 왕국》이며 함흥시민들의 고기공급기라고 기쁨에 넘치시어 교시하시었다.

《오리의 왕국》!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떠나 광포의 력사, 이 나라 가금업의 력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오늘 광포오리공장은 오리가 깹 들어찬 여러개의 비육직장들과 공금직장들, 알개우기장, 큰 능력의 가공직장과 령동창고, 덩치큰 배합력 이공장과 화물열차, 자체란 광 등 오리고기생산에 위해 필요한 모든것을 그쯘히 갖춘 현대적인 공장으로서 전변되었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어

재종동로 김명희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채택한 년로자보호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은 200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발효되었다.

공화국년로자보호법은 총 6개의 장 47개 조로 되어 있다.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제2장 《년로자의 부양》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년로자부양을 사

회생활과 인간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으로, 행동준칙으로 여기고 년로자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정신물질적으로 도와주며 해당 기관들이 년로자들에게 년금 및 보조금, 재산보호 등을 보장할데 대해 밝히고있다.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에서는 보건 의료기관들과 년로자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들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년로자들에게 대한 치료간호 및 체육사업, 영양식품보장사업을 잘하며 100살이상 장수

자의 경험을 널리 소개하고 90살이상의 년로자에게는 따로 정한 사회적혜택을 받도록 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에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년로자가 여생을 보람있고 낙천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도록 문화정서생활과 환경을 보장할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에서는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이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여러가

지 사회활동과 생산, 봉사활동에 참가하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로자가 자기 직업에서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은 직종과 조건을 보장하며 이에 따르는 보수와 표창을 줄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년로자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며 년로자보호기관조직과 보호기관의 창설, 그에 대한 사업조건보장, 사회적우대와 감독통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본사기자